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최근 동향**과 **각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SPECIAL ISSUE

New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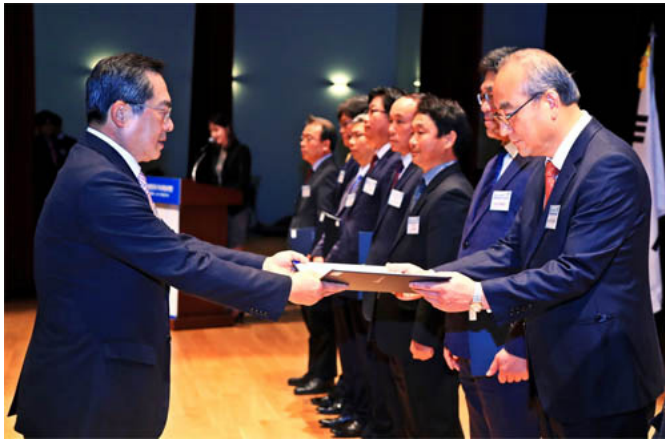
가스안전공, 동반성장 유공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중소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소기업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산업생태계 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중소기업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기업지원성과 50% 성장'을 경영목표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취득해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해외인증 수출액은 357.7%('12년 1.23억\$→'16년 4.40억\$) 성장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을 전년대비 91.8%('15년 6.1억원→'16년 11.7억원)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산업부 산업혁신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생결체시스템을 통해 2~3차 협력사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고,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통해 성과공유 문화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News 02.

가스안전공, 2년 연속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서울 COEX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에서 도시가스배관 종합관리시스템(CPMS, City-gas Pipeline Management System)으로 2년 연속 금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국내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로 36번째 열렸다. 올해 특허대전에는 우수한 기업과 발명가가 출품한 400여개의 특허품들이 각축을 벌였으며,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CPMS는 33개 도시가스사가 배관 안전관리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양식을 제공하고, 입력정보 오류를 자동으로 찾아낸다. 또한 입력된 배관정보에 따라 배관의 위험도 순위를 자동으로 제시해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가지 핵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간 업무간소화 및 효율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 정해덕 기술이사는 "CPMS는 통신과 데이터 관리 기술이 접목된 미래지향적 기술"이라며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현장과 최신기술을 접목시켜 배관안전관리를 선도하고, 공사의 배관진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에는 가스안전공사 임직원과 관련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신규사업과 제도개선, 지역사회 연

계 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의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과 공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gs_safety) 중 한 곳에 100자 이상의 댓글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각 1명이 선정되며 참여자 저위에 대한 무작

의 공사 업무 프로세스(blog:naver.com/stv/100서 이상)의 것들도 검토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각 1명이 선정되며 참여자 전원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커피교환권(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과 가스안전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 04.

조직 쇠신 · 정상화 특별대책위원회 발족



‘채용비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오재순)가 21일 조직 쇠신 · 정상화 특별대책위원회(TFT) Kick-off 회의를 개최하며 특단의 조직 혁신에 돌입했다. 오재순 사장직무대행과 조직혁신 전문가인 상명대 김미경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사 내부 핵심부서 인력을 중심으로 특대위를 구성해 12월말 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특대위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불어진 채용시스템 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평가, 검사 등 공사 업무 전반에 걸친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자문과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방안을 도출해 연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월부터 인사 · 채용시스템 개선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채용 쏠과정 블라인드화, 채용전형 외부위탁과 면접 외부위원 확대, 세부 채용가점 규정화 등 부정 채용과 재량권 남용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주요 골자다. 오재순 사장직무대행은 "최근 발생한 채용 문제는 우리가 40여 년간 쌓아온 가스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공사를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빠뜨렸다"며, "공사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혁신을 통해 위기를 조직 쇠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 05.

열린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17년 가스안전공사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7. 11. 30.(목) ~ 12. 10(일) 24:00까지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응모대상) ① 열린혁신 비전, ② 혁신과제 중 1가지 이상

공모 분야	개념
① 비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구해야 할 혁신의 방향성(또는 지향점) • 작성항목 : (1) 비전, (2) 의미(신정사유) 예) “함께하는 혁신, 더 안전한 대한민국”
② 혁신과제	공사가 추진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혁신 아이디어(사회혁신-정부혁신)
②-1 시민사회 참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공사가 시민사회 및 외부단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며 더 좋은 사업 또는 서비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열린 혁신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가스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열린 혁신 비전과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크게 열린 혁신 비전과 열린혁신 과제로 나뉜다. 비전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지향해야 할 열

① 비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구해야 할 혁신의 방향성(또는 지향점) *작성항목 : (1) 비전, (2) 의미(선정사유) 예) "함께하는 혁신, 더 안전한 대한민국"
② 혁신과제	공사가 추진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혁신 아이디어(사회혁신-정부혁신) ②-1 시민사회 참여 대중 친화적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공사가 시민사회 및 외부단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면 더 좋을 사업 또는 서비스 *작성항목 : (1) 사업(서비스)명, (2) 사업내용, (3) 협업단체(기관) ②-2 기존 서비스 개선 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사·안전관리 서비스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 *작성항목 : (1) 사업(서비스)명, (2) 선정사유, (3) 개선방향 ②-3 공공데이터 개방 공사에서 보유한 데이터 중 국민에게 제공하길 희망하는 공공데이터 또는 안전 향상을 위해 공사에서 향후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작성항목 : (1) 데이터명, (2) 선정사유, (3) 향후 활용가능성

- ③ (응모방법) 아래 중 1가지 방법으로 댓글 작성(비전 70자, 혁신과제 100자 이상, 공백포함)
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KGS 열린혁신공모, 에서 댓글 작성
② '공사 블로그(blog.naver.com/kgs_safety) KGS 열린혁신 공모, 에서 댓글 작성
※ 댓글 작성 시, 응모번호 및 분야별 작성항목(2개-3개) 필수 기재

2 심사평가

- ① (심사기준) 내용의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내외부 심사
- ② (사상내역)

구분	비전	혁신과제	비고
최우수상(각 1명)	20만원	30만원	은누리상품권 지급
우수상(각 1명)	10만원	20만원	
장려상(각 2명)	5만원	10만원	

- ③ (기타사항)
- 제출된 아이디어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귀속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 ▶ 다른 사람이 위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한 것
- ▶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 또는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한국가스안전공사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공모 분야는 크게 열린 혁신 비전과 열린혁신 과제로 나뉜다. 비전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지향해야 할 열린 혁신 방향을 제안하면 되고, 과제 분야에서는 기존서비스 개선, 시민사회 참여 신규사업 발굴, 공공데이터 등 3개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남기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또는 가스안전공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gs_safety) 중 한 곳에 100자 이상의 댓글을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과 가스안전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 06.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성공적 준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3년 2월 산업가스 안전관리강화 시스템 구축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맡을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산안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312억 원을 투입해 충북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3만여㎡를 확보하고, 지난해 3월 산안센터를 착공했다. 이후 1년 6개월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거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산업가스 중화처리설비를 구축했다. 또한 국내 안전교육 분야 최초로 VR(가상현실)기반 교육 시스템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글로벌 인증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안전기기 시험인증 설비(37종 90점)를 보유하게 되었다. 산안센터는 ▲산업가스 잔가스 용기 및 사고용기 중화처리와 ▲산업가스 안전기기 등에 대한 시험인증 및 R&D ▲산업가스 전문교육 및 안전관리 ▲비상대응 등을 통해 국내 산업용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스사고 사후 안전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갖추고, 안전교육과 시험인증 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AFE KGS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일시	훈련시점	훈련내용	훈련방법
10.30 (수)	본사	불시비상소집훈련	현장훈련
10.31 (목)	지역	대구광역시북부지관대비 재난대응훈련	태극일속훈련 현장훈련
11.01 (금)	본사	액성가스(황화수소) 누출 및 화재 대응 훈련	토론기반훈련
11.01 (수)	지역	-본사, 지사,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장훈련
11.02 (목)	지역	부산지역본부 다동일점지역 대량외재대비 재난대응훈련 지관대비 청사대리훈련 소속심 의이기 합동훈련	태극일속훈련 현장훈련
11.03 (금)	본사	불시비상대응훈련(방정안전부) 및 자체 평가회의	재난상황관리 현장훈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유해화학물질(황화수소) 유출사고를 가정해 오전은 본사 종합상황실에서 토론기반훈련(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오후에는 충북 진천군 산수산업단지에 소재한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훈련을 나누어 실시했다. 금번 훈련은 진천군·진천소방서·진천경찰서·진천보건소·육군제37사단·KT·한국전력공사·대한적십자 충북지사 등 총 10개 유관기관 300여명이 참석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및 지자체와 재난대응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이 훈련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옥동초등학교 어린이체험단 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참관과 VR(가상현실) 체험을 실시하는 등 전년과 다른 다양한 구성으로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훈련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현장 훈련을 지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오재순 사장직무대행은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국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공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사고 예방 위해 전국 공무원 한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에서 제1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공무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전국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가스안전관리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점검 및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정부, 지자체와 공사 간 업무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토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지진안전

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정부, 지자체와 공사 간 업무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지진안전성 향상 방안, 최근 사고분석 현황 및 가스사고 사례, 기동단속부 운영 및 가스 3법 법령 주요 개정내용 등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가스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회를 이어갔다.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에서 가스안전관리 활동에 기여한 유공기관 1곳과 유공자 7명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이번 정책교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심도 깊은 토론회와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향후 가스안전관리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제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 09.

가스보일러 사고 점검으로 예방해야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가스사고 사망률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가스보일러 사고 26건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다쳤다. 가스보일러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미비가 18건, 제품노후(고장)이 6건으로 많았다. 시설미비 가운데서도 13건이 배기통 연결부 이탈과 막힘·부식으로 인해 발생했고,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3건, 기타가 2건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선,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 주위에 그을음이 심한 상태로 보이는지, 연결부에서 틈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연결부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찌그러지거나 부식된 노후 배기통을 교체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보일러 시설 불량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져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조그만 관심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설점검과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 10.

가스안전공, 포항 지진 관련 가스시설 점검 신속대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주요 가스시설 점검과 함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사장직무대행 오재순 부사장을 주축으로 가스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가스시설 2천3백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 발생 당일 건물이 붕괴되고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35건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 공급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가 현장에 나가 인입배관 차단 등 임시 조치를 실시했다. 가스안전공사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는 16일 지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진 피해 시설 복구를 총괄하며, 오늘 중으로 가스를 정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 오재순 부사장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시설 피해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가스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ews 11.

LP가스시설,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세요!



주택의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설치가 2020년까지 의무화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해온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이 가스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사고 감축을 위해 서민층 가구에 대해 LP가스 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 교체 비용을 지원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은 2015년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1년 41건이었던 LPG 주택사고가 2015년 27건으로 34%나 줄어드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는 사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시설개선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스시설이 개선된 가구는 54만 7천 가구에 이른다. 한편, 서민층 이외에도 모든 LP가스 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미이행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면, 서민층 이외에도 모든 LP가스 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미이행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LP가스 시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70%에 이른다"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WITH KGS

New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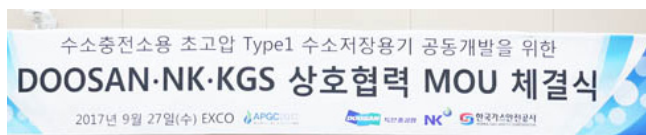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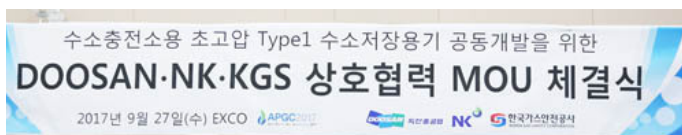
가스안전공, 한전과 굴착공사 정보공유 MOU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월 1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ART센터에서 한전과 지하 매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공사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 중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정보를 공유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 7월 설립, 휴무없이 1년 365일 운영 중이다. 상담사 30명이 24시간 동안 굴착공사신고(1644-0001) 접수를 받아 지난해에만 21만4000여 건을 처리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제도 시행 후 배관 파손사고는 36%나 감소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사 기능의 중복 투자를 막고, 공공 영역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굴착공사자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경제적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해덕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이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에 부합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 13.

두산중공업, 엔케이와 초고압강재압력용기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구 엑스코에서 27일 두산중공업(주) 및 (주)엔케이와 첨단 수소충전소용 설계압 100 MPa 초고압강재압력용기(Type1) 개발 및 신뢰성 평가 기술 협력 강화 등에 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초대형 강재압력용기를 만들기 위한 주된 기술인 대형 단조설비 및 특수 재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강재용기제작 및 인증에 특화되어 있는 엔케이와 더불어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및 국내 첫 번째 수소충전소용 설계압 100MPa급 강재압력용기를 개발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내 외산재품을 밀어내고 국산화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가스용기 안전기기분야 사업협력 확대, 국내 초고압 압력용기 국내외인증 취득지원 협력, 공사의 초고압용기 안전성 평가시스템 및 구조해석 기술 협력,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기준 제?개정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해 국내 신규 초고압압력용기의 개발이보다 수월해지고 서로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수출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경영목표인 "가스안전 글로벌 Top기관 달성"을 위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서로 추가하여 일본제품을 앞설 수 있도록 특허 및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내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초고압 시험동에서 체계적인 개발과 실험실증을 통해 신규개발품에 대한 한단계 높은 서로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문종삼 연구원장은 "국내 건설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내 차압식 초고압충전 강재압력용기가 일본 제품만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사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문적 기술연구를 토대로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고품질 안전한 강재압력용기가 국내충전소에 적용되고 해외에도 판매된다면 국내 기업 육성 및 외화유출 감소를 통해 국익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며, 기업과 공사의 주도하에 신제품 개발 및 국내외기준을 제정해 국내 제조사의 애로사항 해결 및 대한민국의 기술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ews 14.

가스안전 시니어 취업지원사업 착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와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스안전 시니어 취업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울산이 석유화학 및 조선·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가스분야 전문직 퇴직 인력이 풍부한 만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



만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해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

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만60세 이상 가스분야 경력자 및 가스관련
직종 취업희망자를 모집·인력풀을 구성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구인 업체를 적극 발굴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사업 첫해인 올해 연말까지 30명 이상 취업지원을 목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 15.

가스안전공, 강원대학교 방호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5일 강원대학교와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실에서 방호분야 발전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종삼 연구원장과 강원대학교 조준형
부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호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방호분야 연구과제 및 시험·인증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 방호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방호분야 R&D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시험설비와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행사와 전문가 초빙강연 등 관련분야 인
적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연구개발·시험·인증 등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 활용 및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방침이다. 국내 유일의 방호제품 시험·인증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국가 방호분
야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와 업무 협약으로 국가 위기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방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가스안
전공사 문종삼 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가 위기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
호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고품질의 방호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월 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 만들기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2017년 제3차 KGS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주관 부장·실무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공사의 업무 특성을 살린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과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서별 추진과제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현(現)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선순환 가스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동반성장 세부과제 42개를 수립했다. 또한 가스안전과 일자리가 결합된 KGS형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 48건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성장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최고등급(유형내 1위)을 달성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2년 연속 주무부처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HAPPY KGS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귀뚜라미그룹 연합 봉사단이 오늘(15일)부터 연말까지 4회에 걸쳐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워밍업코리아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경기도 파주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진행된 1차 봉사활동에서는 가스시설 점검과 복지시설 환경 개선, 김장담그기가 이뤄졌다. 22일 진행되는 2차 봉사활동은 충북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다. 귀뚜라미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워밍업코리아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진행된 1차 봉사활동에서는 가스시설 점검과 복지시설 환경 개선, 김장담그기가 이뤄졌다. 22일 진행되는 2차 봉사활동은 충북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후 가스시설 교체와 함께 홀몸어르신 식사 대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차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4차에는 지역 아동센터 가스시설 개선 및 연말 산타축제로 워밍업코리아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겨울은 소외계층에게 특히 어려운 계절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많아져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업계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귀뚜라미그룹은 2007년부터 매년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워밍업코리아 봉사활동을 11년째 이어가고 있다.

News 18.

전통시장 가스사고 겨울철에 집중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절반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다며 가스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가스안전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가스사고 10건이 발생해 5건이 겨울철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가스사고 10건 중 8건이 취급부주의 때문으로 가스사용 전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협업을 통해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가스 부적합 시설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개선을 독려하고,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전통시장 가스사고 80%가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가스시설 점검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가스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